

상당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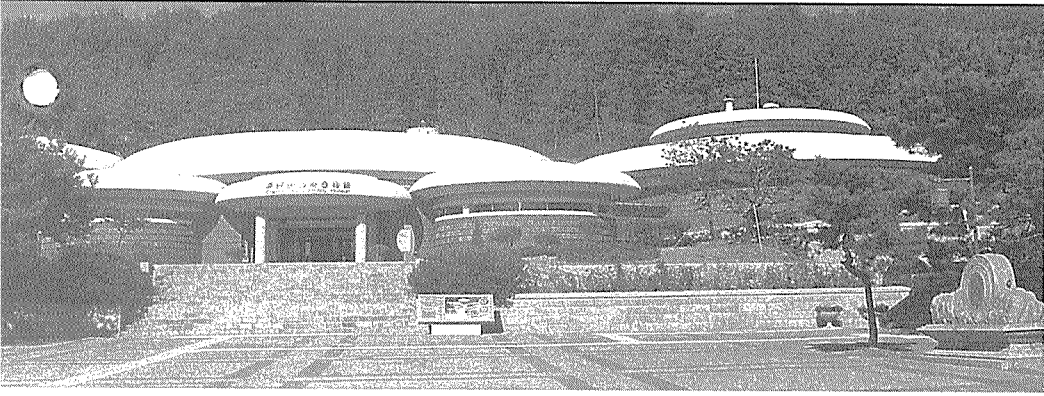
우리 열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도시 '청주'

글·사진 김 맑 음 (여행작가)

길 떠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청주땅은 또다른 매력을 안겨준다. 이렇다할 특색이 있는 것 도 아니면서 묘하게 마음을 잡아끄는 까닭이다. 아파트촌과 변화한 거리는 여느 도시와 다를 바 없지만 빼어난 자연풍광과 이 땅의 내력을 말해주는 문물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노라면 그렇게 정겨울 수 없다.

청주는 어디서나 쉽게 갈 수 있는 교통 요지이다. 땅길(중부와 경부고속도로), 하늘길(청주공항), 철길(청주역)이 고루 트여 있어 마음만 먹으면 하루만에 다녀올 수 있다. 충청권의 대표 도시답게 언제 가도 활력이 넘친다. 여기에 자연의 아름다움까지 볼 수 있으니 그야말로 복 받은 땅이다.

청주로 들어서면 맨 먼저 가로수길을 만나게 된다. 청주의 명물이 된 가로수길은 경부고속도로 청주 나들목에서 가경천 죽천교까지 이어져 있다. 총 길이 4.4km. 잘 포장된 4차선 도로 양쪽으로 심어진 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는 사철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이파리가 바람에 살랑대는 초여름이 가장 아름답다. 1948년에 심은 플라타너스는 흰칠한 키와 굵은 이파리가 아름다움을 한층 살아나게 한다. 오가는 사람들은 이 플라타너스를 보며 잠시 자연의 기운을 받아들인다. 전국의 진입로 중 가장 아름답다는 평을 듣는 것도 그럴 듯 하다는 생각이다. 이 가로수 터널은 종종 달력 사진이나 CF에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하고, 옛 영화 '만추', TV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장으로도 유명



고인쇄 박물관

세를 탔다. 청주의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 가로수길은 지난 해 ‘아름다운 거리숲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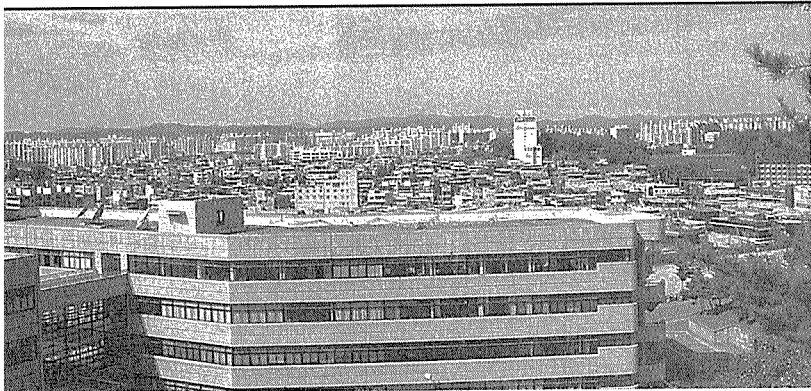
청주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무심천도 가로수터널 못지 않게 아름답다. 사철 독특한 색깔로 옷을 갈아입는데, 청주 시민들의 휴식처요 자연학습장이다. 한자말에서 보듯 무심천(無心川)은 욕심 없고 유순한 청주 사람들의 심성이 그대로 녹아있다. 생태 복원으로 다시 살아난 무심천엔 물고기가 눈에 띄게 늘었고 백로(白鷺)떼는 하늘하늘 날갯짓을 퍼득인다. 봄이면 유채꽃 벚꽃이 만발하고, 여름의 끝자락엔 메밀꽃이, 가을이면 갈대 흔들리는 모습이 장관이다. 곳곳에 쉼터와 놀이동산을 갖추어 놓았고, 하천 옆으로는 자동차길도 열려 있다. 한 가지 아쉽다면 썰 새 없이 내닫는 자동차 때문에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무심천은 청원군에서 발원해 남서쪽으로 흐르고 흘러 남일면 상대리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튼 다음, 청주시내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미호천에 합류, 다시 금강을 거쳐 서해에 이르는, 전체 길이 34.5km의 생태하천이다.

요즘 어느 하천이나 상황이 거의 비슷하지만 무심천도 한때 무분별한 개발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하천을 거슬러 오르던 물고기가 폐죽음을 당하는가 하면 해마다 찾아오던 철새들도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문명이 낳은 결과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은 여름이면 떡을 감고, 겨울이면 썰매를 탔으며, 아주머니들은 빨래를 했다.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 무심천은 다행스럽게도 생태하천으로 다시 태어났다. 옛 모습 그대로는 아니지만 물고기와 철새들이 보이고 철마다 들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무심천 살리기 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 사람들에게 무심천은 몸과 마음을 살찌우는 책과 같은 존재다. 무심천이 없는 청주는 상상만 해도 앞이 깜 막힌다. 무심천이 생긴 것은 18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서전도(湖西全圖)중 ‘청주목 지도’에 붙글씨로 ‘무심천’이란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이 지도에는 청주읍성이 또렷이 나와 있고, 산천, 행정구역 등을 표기해 놓았는데, 운천동 일대 봉림숲(북숲) 뒷편을 흐르는 냇물을 ‘무심천’이라 적어 놓았다. 무심천 롤러스케이팅장 옆에 세워져 있는 유래비에는 무심천이 통일신라 - 남석천(南石川), 고려 - 심천(沁川), 조선 - 석교천(石橋川)·대교천(大橋川), 일본강점기 - 무성뜰으로 불려왔다고 적혀 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동국여지승람과 대동여지도에는 현재의 무심천을 대교천(大橋川)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교’란



상당산성 순환도로에서 바라본 청주 시가지

‘큰 다리’란 뜻인데 현재 육거리시장 부근 땅속에 묻혀있는 남석교(南石橋)를 가리킨다.

무심천에서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내 몸은 어느 새 상당산성으로 향한다. 말로만 듣던 상당산성은 우람함이 사뭇 도전적이다. 산성 위에서 바라보는 청주는 회색과 녹색의 조화가 참으로 절묘하다. 바람의 맛, 하늘빛이 다르다. 상당산성에는 동북암문, 서북암문 두 곳의 비밀의 문이 있다. 둘레 4.2km, 높이 3-4m에 이르는 상당산성(사적 제212호)은 벽면을 수직으로 잇고 그 안쪽에 토사를 쌓아 올린 이른바 내탁공법으로 축조하였다. 동, 서, 남쪽으로 3개의 문을 두었고, 3문 모두 문루를 갖추고 있다. 예전에는 성 안에 5개의 연못과 샘, 사찰 등이 있었다고 전해지나 현재는 커다란 저수지 하나만이 남아 있다. 시가 산성을 사적지로 지정한 뒤 마을의 가옥들을 한옥기와집으로 바꿨다.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산성 안 한옥 마을에 가면 고풍스런 기와와 지게, 낫, 호미, 물레방아 등을 볼 수 있고, 마을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는 토속 음식을 판다. 상당산성은 사철 아름답지만 화려한 꽃들이 주위를 뒤덮는 봄철의 경치가 빼어나다. 산성 인근에 있는 명암약수는 초정약수, 부강약수와 더불어 충북의 3대 명천으로 꼽힐 만큼 유명하다.

청주 하면 여러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흥덕사지와 고인쇄박물관은 이 고을을 찾은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준다. 양명산 동남쪽 기슭, 옛 연당리 마을에 있는 흥덕사지(興德寺址)는 1985년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던 운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중 많은 유물이 출토되자 이 가치를 인식하고 공사를 중단, 청주대학교 박물관팀에 의해 발굴된 고사지이다. 사찰의 창건 년대와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을 이곳에서 인쇄하였음이 밝혀져 발굴 완료 후 사적 제315호로 지정하였다. 흥덕사지 안에는 우리나라 인쇄기술의 발달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고인쇄박물관과 정면 5칸, 측면 3칸 겹처마 팔작지붕의 금당과 3층 석탑이 남아 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은 독일의 구텐베르크보다 70여 년이나 앞선 것으로, 우리 민족의 독창성과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준다. 전시실에는 인쇄 문화실과 흥덕사지 유물실, 고서 503점, 인쇄기구 69점 등 흥덕사 출토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다.

청주땅을 밟았다면 근교에 자리잡고 있는 초정리 광천수와 운보 김기창 화백(2001년 1월 작고)이 말년에 머물며 작품 활동을 했던 운보의 집에 들러보자. 청주-충주간 국도에서 초정리쪽으로 빠진다. 세계 3대 광천수 중의 하나인 초정약수는 청원군 북일면 초정리에서 나오는 천연 탄산수로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에 발견되었다. 초정 약수 부근에는 광천욕을 할 수 있는 초정약수 스파텔이

청주의 명물이 된 가로수길 !!

청주 시민들의 휴식처 - 무심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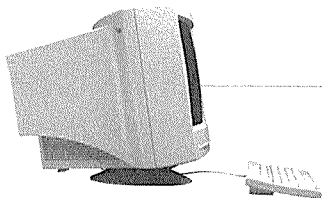
충북의 3대 명천으로 유명한 - 명암약수까지 !!

청주만의 아름다운 경관은 또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영업 중이다. 대욕장에 초정약수가 담겨 있어 성인병과 피부 미용 효과를 보려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 입욕료 4,000원, 문의 043-210-7000.

운보의 집은 초정약수에서 청주 쪽으로 나오다 좌측 산허리 끄트머리에 있다. 청각 장애라는 '천형'의 굴레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근대화(近代畫)의 거목으로 우뚝 선 운보는 이곳 살림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드넓은 터에는 선생의 체취가 묻어 있는 살림집을 비롯해 운보미술관, 도예공방, 찻집, 사슴목장, 연못, 잔디밭, 운보의 유택 등이 있다. 대지 1천평에 행랑채와 안채로 이루어진 한옥은 고풍스럽기도 하려니와 연못과 정자 등을 적절히 배치해 집안 조경이 일품이다. 운보미술관은 그가 남긴 각종 유품을 보려는 사람들로 늘 붐빈다. 또 도예공방에서는 각종 생활도자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찻집에서는 운보의 판화작품과 기념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여행메모 (지역번호 043) = 경부고속도로 청주 IC - 가로수터널 - 충북도청 - 청주백화점 - 국립청주박물관 - 무심천 - 상당산성.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IC - 고인쇄 박물관 - 무심천 - 우암산 우회도로 - 상당산성(주차 시설-210여대 수용), 청주 시내에서 산성마을까지 시내버스 수시 운행, 20분 소요. 운보의 집은 청주 - 충주간 국도를 타고 내수읍에서 속리산 쪽으로 가다 삼거리에서 우회전(이정표 보임). 운보의 집에서 초정약수까지는 10분 거리. 산성마을 안에 상당집(오리한방백숙 28,000원. 묵밥 4,000원, 252-3291), 진미(엄나무백숙 25,000원. 토종닭감자탕 20,000원, 252-7860), 제일장한방오리백숙 30,000원. 도토리묵 4,000원, 254-3979) 등 토속음식을 파는 식당이 많다. 청주 시내에 있는 청주관광호텔(264-2181), 명암파크관광호텔(257-7452) 등 숙박시설 이용. 청주시청 문화관광과(220-6162, 6170), 고인쇄박물관 홈페이지 www.jikjiworld.net. 충청북도 관광협회(273-7724), 상당산성관리사무소(220-6174), 운보의 집(www.woonbokorea.com, 213-1203), 청주고속버스터미널(232-4800), 시외버스터미널(235-6543), 청주역(231-7788), 청주공항(264-4441)



진흥회 Homepage 이용안내

<http://www.koema.or.kr>